

해외 배낭여행 결과보고서

(여행팀명 : 40벤저스 유럽가다)

I 개 요

- 여행기간 : 2018. 10. 6.(토)~10.14(일)/8박 9일
- 국 가 : 스위스, 이탈리아
- 견학시설 : 카펠교, 콜로세움 등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등
- 팀 인 원 : 4명(강시환, 김세웅, 류태경, 양형석)
- 주요내용
 - 천혜의 자연을 가진 스위스를 방문하여, 자연을 활용한 관광지 사업을 체험하고, 공단에 도입 가능한 우수 사례 발굴
 - 유구한 역사를 가진 로마의 건축술을 직접 대면하여 느껴보고 오래된 시설물의 관리 기법을 고민해 봄.

일 정

- 1일차(10/6) : 부산(김해) 출발 - 홍콩 경유 - 스위스 취리히 도착
- 2일차(10/7) : 루체른 시내투어 (카펠교, 구시가지 등)
- 3일차(10/8) : 인터라켄 - 융프라우요흐 등반, 피르스트 등반
- 4일차(10/9) : 밀라노(이탈리아) 이동 - 두오모성당 등 시내 투어
- 5일차(10/10) : 로마 이동 - 시내투어(콜로세움, 카타콤베 등)
- 6일차(10/11) : 바티칸 시국 투어, 로마 야경 투어
- 7일차(10/12) : 남부 지방(폼페이유적지, 포지타노 마을) 투어
- 8~9일차(10/13~14) : 레오나르도다빈치 공항 출발 - 부산도착

				
<2일차> 루체른	<3일차> 융프라우요흐	<5일차> 로마 콜로세움	<6일차> 바티칸 시국	<7일차> 폼페이 유적지

II

국가 개요

□ 스위스(Switzerland)

- 국 명 : 스위스(Confoederatio Helvetica) - 수도 베른(Bern)
- 정부형태 : 스위스식 회의제, 연방공화제, 양원제
- 면 적 : 41,277km²
- 인 구 : 약 8,544,000명(2018 통계청 기준)
- 민 족 : 독일계 65%, 프랑스계 18%, 이탈리아계 10% 등
- 종교 : 카톨릭 41.8%, 개신교 35.3%, 이슬람 4.3%
- 언 어 :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 1인당 GDP : 7,091억\$ /세계20위
- 화폐단위 : 스위스 프랑(CHF), 유로(EURO)
- 기 후 : 대서양과 동부 유럽 대륙, 지중해 기후 등의 영향
- 주요산업 : 공공행정 24.9%, 유통·요식업 24.8%, 제조업 19.4%, 금융업 19%
- 병역제도 : 징병제

□ 이탈리아(Italia)

- 국 명 : 이탈리아(Italian Republic), 수도 로마(Rome)
- 정부형태 : 민주공화제, 내각책임제
- 면 적 : 301,340km²
- 인 구 : 61,261,254(2012년)
- 민 족 : 이탈리아인
- 종교 : 카톨릭 80%, 기타 20%
- 언 어 : 이탈리아어
- 1인당 GDP : 32,521억\$
- 화폐단위 : 유로(Euro)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
- 주요산업 : 서비스업 73.8%, 제조업 24.2%, 농림수산업 2%
- 병역제도 : 징병제(이행연령 18세~25세, 현역 10개월 예비역 45세)

Ⅲ

견학 시설

□ 견학시설명 : 루체른 카펠교

- 위 치 : 스위스 루체른주 루체른 로이스강
- 개 원 : 1333년
- 규 모 : 연장 204m
- 특 징

- ▷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나무다리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어 본래 도시 요새의 일부분이었다.
- ▷ 지붕의 들보에는 스위스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루체른 수호성인의 생애를 표현한 112매의 삼각형 판화 그림중에는 17세기 하인리히 베그만의 작품도 10여점 포함되어 있다.
- ▷ 다리 중간에 있는 팔각형 석조의 바서투름(물의 탑)은 등대를 겸한 루체른 방위 탑으로, 위급할 때에는 시민에게 경종을 울려 알리는 종각과 감옥소 또는 공문서의 보관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 ▷ 로이스(Reuss)강 남쪽 제방에 있는 루체르너(Luzerner) 극장부터 리소우쿠아이(Rathausquai)에 있는 생 페터(St. Peter) 교회까지 놓여 있으며, 지그재그로 워터 타워(급수탑)를 지나간다.



□ 견학시설명 : 융프라우

- 위 치 : 스위스 베른주 베른알프스산맥
- 규 모 : 높이 4,158m,
- 어 원 : '처녀'라는 뜻으로 인터라켄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명명됨.
- 특 징
 - ▷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북벽(北壁)에는 중생대 쥐라기의 석회암이 노출되어 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인 융프라우요흐(높이 3,454m)에서 4시간이면 등정할 수 있으나 상당한 숙련이 필요하다.
 - ▷ 융프라우 철도는 1896~1912년 건설되었으며, 최대경사도 25도의 아프트식으로, 9.3km를 오르는 데 50분이 걸린다. 기점역(基點驛)인 클라이네샤이덱(높이 2,061m)에서 약 2km는 완만한 초원이지만, 나머지 7km는 모두 아이거와 뮌히의 산허리를 뚫은 터널이다.
 - ▷ 빼어난 알프스의 고봉들이 즐비한 가운데 융프라우는 알프스 최초로(200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융프라우와 더불어 산줄기 사이로 뻗은 알레치 빙하도 유산에 속한다.
 - ▷ 최근 융프라우 일대에서 유행처럼 인기 높은 게 트레킹이다. 70여 개 코스, 200km의 다양한 코스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트레킹 루트는 곤돌라를 타고 2,000m 지점에서 시작해 산악마을과 야생화 길을 완만하게 걷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상사진



산악열차



기념촬영

□ 견학시설명 :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

○ 위 치 : Piazza del Duomo, 20122 Milano MI, 이탈리아

○ 정식명칭 : 산타 마리아 나센테 대성당

○ 개 원 : 1386년(공사기간 : 약 600년)

○ 규 모 : 높이(108m), 전장(148m), 수용인원(40,000명)

○ 내부구조 : 5랑식 본당, 3랑식 익당

○ 건축양식 : 고딕 건축, 고딕 리바이벌 건축

○ 특 징

- ▷ 고딕 양식의 성당으로는 세계 5위 안의 규모를 자랑하며, 바티칸을 제외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대성당
- ▷ 구조면에서는 로마네스크-르네상스 건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바로크적인 화려함을 지니고 있음
- ▷ 가장 유명한 조각상은 108m 첨탑 위의 마돈나 성모 마리아 조각상으로, 금박 3천 9백 장으로 덮여 있음
- ▷ 오랜 공사기간(약 600년)으로 여러 설계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역사적 건축양식의 집합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음
- ▷ 전체적으로 화려함으로 가득찬 공간이며, 수많은 소첨탑과 2,245개의 대리석상으로 지붕위 풍경이 일품인 건축물



두오모 대성당 전경



두오모 대성당 측면



성당 근접 사진



성당 벽체 상세



성당 앞 광장



광장 버스킹하는 사람들

□ 견학시설명 : 콜로세움

- 위 치 : 이탈리아 로마 Piazza del Colosseo
- 건축기간 : 서기 72년 ~ 서기 80년
- 규 모 : 최대지름 188m, 최소지름 156m, 둘레 527m 높이 57m 4층으로 된 타원형 건물
- 어 원 :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 콜로세움이라는 명칭은 원형극장 근처에 세워진 거대한 네로 황제의 동상(콜로서스) 때문에 붙여진 것
- 특 징
 - ▷ 로마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거대한 원형 경기장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1980)
 - ▷ 볼트식 아치를 통해 5만명에 이르는 광客的 무게를 견뎌냈으며 76개에 이르는 문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신속하게 출입
 - ▷ 현재 콜로세움 상단부는 222년 ~ 224년에 증축한 부분으로 240개에 이르는 기둥에 천막을 쳐서 비가와도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 ▷ 때로는 이곳에 수도교로 끌어온 물을 채워 거대한 해전을 재현하기도 했다고 함.

		
전체 전경	건물을 지탱하는 수많은 아치	눈에 띄게 복원한 모습
		
콜로세움과 개선문	콜로세움 내부	막대한 수량을 공급한 한 수도교

□ 견학시설명 : 바티칸시국

- 위 치 : 이탈리아의 로마 북서부에 있는 카톨릭 교황국
- 규 모 : 면적 0.44km²의 세계 최소 독립국
- 어 원 : 그리스도교 발생 이전부터 전해져온 오래된 말로, 티베르강 옆에 위치한 바티칸 언덕을 뜻하는 라틴어 몬스 바티카누스(Mons Vaticanus)에서 유래
- 특 징
 - ▷ 건축가 지안 로렌초 베르니니가 설계한 산피에트로광장은 동시 수용인원 30만명이 가능한 큰 광장으로 둥글게 펼쳐진 열주를 감싸 안아 전 세계를 구원한다는 의미를 형상화 했음.
 - ▷ 길이 211.5m, 천장 높이 45.44m에 이르는 카톨릭의 총본산 교회인 산피에트로(성베드로) 대성당이 있다.



□ 견학시설명 : 폼페이 유적지


- 위 치 :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나폴리현 베수비오 산 남동쪽
- 규 모 : 성벽면적 0.635km², 시가지 0.605km²
- 특 징
 - ▷ 폼페이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한순간에 화산재에 묻혀 사라져 버림.
 - ▷ 1979년 발굴되기 전까지 화산재에 매몰되어 있었으며, 발굴을 하면서 나타난 고스란히 남아 있는 당시의 생활 모습과 매몰 순간의 급박한 사람들의 모습이 화석으로 남아 있음.



IV

제안 및 개선사항

□ 해외연수를 통해 공단관련 업무와 연계한 제안 및 개선사항

<p>○ 야간 경관조명</p> <p>▷ 랜드마크에서 발산하는 조명이 아닌 랜드마크를 비추는 간적조명 방식으로 변경</p> <p>⇒ 적용가능부서: 자갈차시장사업소 등</p>	 <p>성안젤로 성 야경 <로마></p>	 <p>성베드로성당 야경 <바티칸시국></p>
<p>○ 청사 외벽을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변화</p> <p>▷ 벽면녹화를 통한 친환경 디자인 건물</p> <p>▷ 벽면녹화를 하면 단조로운 벽면을 보다 생동감있게 변화시킬수 있으며</p> <p>▷ 단열성능도 있어 에너지 절감의 효과도 있다.</p> <p>⇒ 적용가능부서 : 건물이 있는 모든 부서</p>	 <p>Bosco Verticale(밀라노)</p>	 <p>무제크성벽(루체른)</p>
<p>○ 콜로세움 주변의 마차</p> <p>▷ 마차를 이용한 관광수입 증진</p> <p>▷ 넓은 공원 또는 광장을 가진 부서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 가능</p> <p>⇒ 적용가능부서 : 공원사업단</p>	 <p>콜로세움 <로마></p>	
<p>○ 피르스트 액티비티</p> <p>▷ 고지를 이용한 썰라인, 마운틴카트 등 액티비티 사업 적용</p> <p>⇒ 적용가능부서 : 태종대유원지 등</p>	 <p>마운틴카트</p>	

□ 문화 분야

○ 패션의 도시, 밀라노

밀라노에서 일하는 현지 근무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세계 패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파리지앵이나 뉴요커처럼 밀라노에 사는 사람을 밀라네제(Milanese)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았다. 시내 거리에는 각자 개성있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르네상스의 영향, 섬유산업의 육성정책 등 꾸준한 노력은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부산도 특유의 장점과 특징을 살려 지속적으로 육성·개발한다면 세계가 지켜보는 부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밀라노의 시내 거리



현지 근무자와 대화

○ Slow food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슬로우푸드이다. 우리는 이탈리아 방식으로 점심 한끼를 먹는데 1시간 반정도 소요되었으며, 현지인과 인터뷰 중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뚝뚝한 사람이 없는 이유 중 하나도 천천히 먹는 식사 습관을 꼽았다. 빨리빨리 문화를 탈피하여 먹는 즐거움도 느껴보고, 건강까지 챙겨보기를 기원해 본다.



이탈리아 요리 코스1



이탈리아 요리 코스2



이탈리아 요리 코스3

○ 유럽의 밤

스위스와 로마의 야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이 가능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했으며, 우리가 느낀 야경을 한마디로 하자면 은은함이 었다. 도시의 전체 경관과 건물의 외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의 밤거리에는 번쩍 거리는 간판이나 조명은 찾을 수 없었으며, 거리의 가로등과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비추는 형식의 조명등만이 거리를 밝혀 고즈넉한 느낌을 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었다. 회사 동료나 친구보다 가족을 우선시 하는 문화차이에 의한 우리나라와는 다른 밤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 시설분야

○ 공공광장을 의미하는 포럼(Forum)

이탈리아의 광장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 나보나광장을 예로 들면 고대 로마시대 버려진 경기장이 시간이 지나며 관중석을 따라 상점이 들어서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본 나보나광장은 당시 로마의 천재 건축가 베르니니와 보로미니의 작품 주변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모여 구경하고 먹고 즐기는 곳이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송상현광장과 비교하여 생각했을 때 첫째,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유동인구를 유입을 위해서 조금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으며, 둘째, 여러 상점이 모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면 사람들이 저절로 발길이 가는 재미있는 광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 반파된 문화유산 콜로세움

이탈리아가 1861년에서야 통일이 되며, 서로 다른 나라였던 그들을 정신적으로 묶기 위하여 그들의 조상인 로마제국의 유산 발굴이 활발해졌다고 한다. 여행 전부터 궁금했던 반파된 콜로세움은 다른 민족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통일 전까지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 자재 수급을 위해 자기 민족에 의해 파괴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특이한 점은 일부 복원이 되어있으나, 눈에 확연히 차이가 보일 정도로 다른 재질로 복원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네스코의 복원에 대한 원칙으로 복원 또한 하나의 역사로 규정하여 이전 상태와 구분 짓기 위한 수단이었다. 우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 시민공원과 같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그 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여 지금의 역사를 동시에 반영시킬 수 있는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과거 생활을 그대로 담고 있는 폼페이

서기 79년의 모습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옛날 마차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고 횡단보도까지 있는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잘 계획된 도시라는 점에 더욱 놀라웠다. 뛰어난 건축술로 24시간 끊이지 않는 수도를 도로위에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고, 밤에는 수도배수구멍을 막아 도로 위로 넘쳐흐르게 하여 말뚝으로 뒤덮힌 도로를 인력하나 들이지 않고 깨끗하게 정비했다는 깨알같은 아이디어는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아이디어는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 환경분야

○ 스위스의 자연환경

어렸을 때부터 알프스 마을에 대한 환상에 스위스는 언제나 여행지 버킷리스트 1호였다.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지형으로 목적지가 아닌 이동하는 경로 중에도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다. 외관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 하는 유럽인의 의식 때문인지 어릴 때 동경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 더욱 감명 깊었다. 격변하는 우리 도시에도 보존을 할 수 있는 또는 해야할 것들을 찾아 우리 시설물을 찾는 시민에게 추억을 남겨야할 듯 하다.



○ 피르스트의 액티비티

피르스트는 케이블카를 타고 3개 정류장을 거쳐 정상에 도착한다. 각 정류장마다 하산하는 방법이 바로 액티비티(글라이더, 산악바이크 등)를 이용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액티비티만이 전부가 아니라 주변 경치, 방목한 소까지 하나가 되어 그 절정을 이룬다. 사업을 함에 있어 단 하나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까지 끌어들이며 최대의 관광지 효과를 누려야 할 것이다.



V**선물수령관련**

- 선물수령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여부 : 예,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공단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공단 감사실에 제출